

LA총영사관,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시작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환, 이하 총영사관)이 재외공관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을 찾은 민원인들의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교육 관련 증명서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이어서 한국에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

총영사관 측은 "무인민원발급기만 사용하는 경우 민원실 방문 예약없이 사용 가능하지만 발급 가능한 서



▲ LA총영사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한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 사진=LA총영사관

류들이 다른 업무들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문 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민원실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서류는 민원실 내 업무 처리용이나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미국 이민국이나 DMV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서류는 여전히 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미 행정기관은 총영사관 도장이 있는 서류들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총영사관은 향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들도 미 행정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간다는 방침이다.

총영사관 민원실의 연간 민원 처리 건수는 약 9만 건에 이른다. 그 가운데 3만 건 이상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이다. 총영사관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업무 가운데 약 1만 건, 즉 전체 건수의 약 10%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총영사관의 지난 2월 개설한 메신저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12월부터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카오톡 챗봇은 휴대전화를 통해 영사민원 정보를 검색하고 민원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영사관 카카오톡 친구는 지난 8일 현재 2,100 명이 넘는 한인들이 친구로 등록돼 있다.

한인 16%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검색당해"

미국 내 한인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의 닐 루이즈 수석연구원은 1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들'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16%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2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시아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같이 답한 사람은 20%였다.

그러나 한인의 60%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인종차

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거의 또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종차별 경험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의논한다고 답한 한인은 12%에 불과했다. 또한 한인 응답자 67%는 미국 내 아시아계에 일어난 일이 자기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루이즈 연구원은 2021년 애틀랜타 스과 총격 사건을 예로 들며 "애틀랜타에서 한인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미국 전체 아시아인들이 자기 일처럼 슬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인 응답자의 26%는 한국으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루이즈 연구원은 "한인들은 한국 이주 고려 이유로 미국보다 나은 의료보험(26%), 한국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다는 점(22%) 등을 들었다."며 흥

미로운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주 한인 인구는 196만여명으로, 아시아계 인구의 8%를 차지해 5번째로 큰 아시안 인구로 나타났다.

또한 25세 이상 미주 한인 이민자들의 57%가 대졸 이상 학력을 지녔으며, 가구당 중간소득은 7만2천달러로 미국 내 아시아계 평균 8만6천달러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퓨리서치센터가 2022년부터 7개월 동안 미국 50개 주에서 한인을 포함해 아시아계 7천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과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미주한인위원회(CKA)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했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Dr. Soung Hoon Cho
DDS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